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위한 행정력 집중

순창군, 시장사용료 30% 감면·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1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전통시장(순창·동계·북흥) 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형태인 대면형 유통시장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급감해 군이 시장사용료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군은 시장사용료 감면외에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소당 연 매출액 1억 2천만 원 이하였던 자영업자를 3억 원 이하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이월러 지난 4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가며 지역경제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역내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내 유통되는 자금흐름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맞아 10여일 동안의 특별할인기간에 21억 원 상당품이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할인기간 확대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황주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돌쇠와 함께 코로나를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가 소상공인 응원물결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SNS를 통한 특별이벤트를 릴 전개 중이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임실군청 공무원 홍보모델인 돌쇠와 함께 임실사랑상품권과 치즈핫도그를 경품으로 내건 ‘소신 빅이벤트’다.

지역업자들을 응원하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 이벤트로 ‘쓸쓸하다는 소상공인의 밤이 달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단밤 이벤트’다.

추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1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임실치즈 핫도그를 170명에게 각각 제공한다.

지난 11일 첫 게시한 이벤트 게시물은 시차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벤트를 시작한 후 6일이 지난 현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가 소상공인 응원물결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좋아요와 댓글 등 2,400여개의 반응이 올라왔으며, 300여명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SNS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실군청 SNS는 지난 해 임실치즈 축제에서도 무려 15만여명에 달하는 홍보게시물이 도달하는 등 폭발적인 홍보 효과를 내기도 했다.

SNS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임실군청 SNS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군은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경품으로 주어진 임실사랑상품권 사용 인증샷 등 2차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당첨자는 31일 임실군청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에 포상금 100만원 지급

육군 1625부대, 11명 전입실적 올려

순창군이 17일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라 2019년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인 적성면 소재 육군 1625부대에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포상금을 받은 육군 1625부대는 지난해 11명의 전입실적을 올렸다.

순창군이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기관·기업체·군부대를 대상으로 전입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상금은 관내 유공 기관, 기업체, 군부대 근로자 중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전입실적 기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금액은 5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30명 미만 200만원, 30명 이상~50명 미만 300만원, 50명 이상이면 500만원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달말까지 농업용 수리시설 일제 점검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달말까지 관정과 양수장비

등 관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형관반관정 449개소, 양수장 16개소, 취입보 43개소, 저수지 158개소 등 농업용 수리시설

총 663개소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관정과 양수장비의 펌프작동 여부, 관로누수 여부 또한 중점 점검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최대한 지원한다.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량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에 이어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을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농업용지게차(3억 원)에 30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추가로 지게차 30대를 지원, 봄철 영농철부터 가을철 벼 수확기까지 적기 영농지원으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ha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벼 재배생산단체(5농가 10ha 이상)를 대상으로 소농가의 농작업대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면허 소지자에게 지원하며 3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에 한해서 지원한다.

한편 이강조 농정과장은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이 농촌 노동력절감에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스마트농업기술 확대 보급 앞장

남원시가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기술의 확대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농업기술센터에 테스트베드 교육장(102㎡)과 5연동 및 3연동 하우스에 스마트 온실을 구축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뮬레이터, ICT 기자재, 전기전자 제어반 등을 통해 실습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원격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 의원과 관

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확대 이해 정책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기능도 보강할 예정으로, 실습 체험교육을 증대시키고 명품농업대학의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가간 데이터공유기반을 확대해 모니터링 원격지원 컨설팅 대상을 증대시키는 한편, 시설과수 3개소에 스마트팜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다.

2019년 순창군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약 2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도와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되 에어컨의 송풍구·환기구 등과 1.5m 이상 떨어진 장소가 좋다. 또한, 가스레인지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코로나19 대비 위해 음압이송 들것 지원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7일 코로나19 대비하기 위해 남원시보건소에 음압이송 들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남원의료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음압이송을 들것은 환자 이송 시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 공기 속에 묻어 나가는 병원균 등을 공기 필터로 여과해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광수 서장은 “남원 관내에는 확진감염자가 존재 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비상근무체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